

# 국제사료곡물 동향

## — '89년초 사료가격 인상전망

— 편집부 —

**미**국의 88/89년도 옥수수 생산예상량은 전년대비 36.8%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옥수수가격은 9월들어 국제수요 증가와 소련의 대미곡물협정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입수요 증가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최근들어 다시 중개인들의 매수물량 처분, 수요침체 등으로 140불선을 유지하고 있다. 대풍작이 예상된 태국산 옥수수는 135불선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구권 국가는 옥수수 작황이 부진하여 유고슬라비아는 전년도 보다 약300만톤이 감소한 900만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독, 불가리아 등은 이미 100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구매하였다. 향후 미산 옥수수 수요는 동구권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어 옥수수 수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0불대를 유지하며 안정을 찾고 있는 옥수수 가격은 89년도에 는 기말재고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점

진적으로 상승하여 150불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16일 미산 옥수수 가격은 9월 선적분이 138~143불, 12월 선적분이 147~148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안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타 원료 가격도 옥수수와 일정한 껍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산 수수는 한발피해로 6월에 큰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수수도 동반상승하였다. 9월16일 현재 미국과 아르헨티나 수수가격은 C&F 톤당 138불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중공산 수수는 상대적으로 10불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료용 소맥시세도 미국의 한발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7월 초순

표 1. 미국사료곡물 가격동향

품목	미국의한발 피해연도	1~6월 평균가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연평균 가 격
옥 수 수	1980	154.17	173.39	182.37	182.63	186.54	197.77	200.67	170.70
	1983	147.68	156.04	169.52	167.94	166.74	166.97	163.01	156.36
	1988	120.13	151.14	140.56	141.35	145.91	149.27	148.88	
대 두	1980	283.42	326.83	336.61	360.62	376.30	400.98	371.80	322.80
	1983	261.84	277.58	347.72	360.96	348.56	339.02	330.99	297.99
	1988	294.10	357.29	359.79	361.63	361.63	363.83	365.12	
대 두 박	1980	256.01	286.09	305.19	341.39	363.13	389.46	342.30	296.97
	1983	246.56	256.37	308.66	307.74	299.99	299.97	291.22	270.28
	1988	279.36	333.88	336.09	340.50	341.83	341.83	341.28	336.65

경에는 C&F 톤당 160불대까지 양등했으나 그후 점진적인 하락세로 들어가 140불선까지 시세가 형성되었다. 최근들어 세계교역물량의 30%를 차지한 EC의 수출여력 감소와 소련의 대량구매에 힘입어 9월 16일 현재 156불까지 오르고 있다.

태국산 타피오카는 기말재고가 200만톤정도 예상되나 11월 수확기에 풍작이 예상되어 기말재고와 함께 900~1,000만톤정도의 재고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타피오카 시세는 공급과잉으로 하락할 전망을 보이고 있어 대체가능품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료협회에서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 대두박 가격을 한발과 열과피해가 발생했던 80년, 83년과 비교해 본 결과 금년 상반기의 경우 대두나 대두박 가격은 80년, 83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옥수수의 경우 80년, 83년 수준에 크게 미 못하고 있다(표 1).

그러나 분기적인 가뭄피해로 인한 가격상승이 6월부터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및 89년 상반기 가격은 80년, 83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미 국제곡물시세는 큰폭으로 상승하여 국내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발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6월말부터 곡물시세가 폭등하자 국내사료업계에서는 구매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폭등하기 전에 기구매한 곡물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올해안에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89년초부터는 가격이 오르는 시세로 구입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10% 이상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사료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으면 즉각 반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료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되고 건의하여 차츰 시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축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인디언처럼 보호”라는 수치스런 말을 듣기도 했다.

영세한 옥수수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산옥수수 배정, 국내굴지의 재벌급에 속한 대두 3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두박 쿼터제, 보호할 일이 있으면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지 인디언처럼 보호받아야 할 양축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같은 농민으로서 국산 옥수수를 사용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차액은 정부에서 보상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는 곡물가 10불상승보다는 우리만의 제도적 모순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양축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표 2. 주요곡물시세

품 목	원산지	시 점			
		8.1	8.19	9.2	9.16
옥수수	미 국	136	139	148	143
	태 국	133	138	135	135
	중 공	-	133	133	-
	아르헨티나	155	155	152	-
수 수	미 국	138	139	135	138
	중 공	-	127	127	126
	아르헨티나	-	140	129	138
소 맥	EEC	140	145	145	156
보 리	카 나 다	150	150	150	155
	EEC	150	150	145	150
호 밀	카 나 다	-	-	159	-
	EEC	-	132	132	132
채종박	카 나 다	205	235	220	225
	인 도	155	150	150	145
	중 공	140	140	140	140
소맥피	인도네시아	110	105	109	109
	쓰리랑카	110	109	109	109
	아르헨티나	120	118	118	118
	카 나 다	130	125	115	120
G.P.S	카 나 다	100	105	100	98
대두박 (44%)	미 국	324	336	331	333
	중 공	287	298	295	295
	브 라 질	290	335	320	335
	아르헨티나	290	335	320	335
타피오카	태 국	70	80	70	65
투우편	호 주	235	235	235	235